

# 歷史上 道通人과 到來할

## 道通眞境 推論

安鍾沄\*

### 目次

緒論	1) 私生活을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本論	2) 公務를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I. 歷史上 道通한 李舜臣論	3. 天命을 完遂한 道通 聖人 李舜臣
1. 李舜臣에 대한 새로운 評價	II. 後天 道通 眞境論
1) 李舜臣 非英雄論	1. 後天 道通 前提條件
2) 李舜臣의 경우	2. 道通 眞境의 構圖
2. 仁者로서의 李舜臣	結論

### 緒論

漢字文化圈에서 「道通」이라 하면 통용되고 처음 듣는 이라 해도表記즉시로 이해하게 된다.

우리 나라 말로 「道通」에 대한 해설은 거의 대부분 辭典에 다음과 같이 통일되었다.

『道通은 事物의 奧妙한 이치를 깨달아 통하는 것』

『어떠한 사물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통하는 것』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이상의 해명 외에 더 없다.

이만큼 東洋 漢字文化圈에서 道通의 뜻이 통할 뿐아니라, 英語로 「Tao-Tong」(道通)이라면 그 나라 말로는 없기에 「Do-Tong」을 표음하면 모르지만, 「道」字와 「通」字를 번역하면 곧 두 字가 결합한 한 概念을 이해한다.

**Tao-Tong=Spiritual enlightenment**

그러나 西洋에는 「道」라는 文字가 없을 뿐아니라 「道」의 思想이 없기 때문에 또 번역하자면 「Spiritual way」 즉 「精神的 道」이라 할 도리밖에 없고 그것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도 없다.

道의 思想은 東洋哲學 間에도 一定치 않으며 그 대표적 차이는 道家인 老莊哲學과 孔孟哲學이 크게 다르고 여러 學派가 주장하는 眞理觀이 그 道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道通」이라 할 때는 어느 한 學派의 眞理觀에 기준해서 精通할 때 道通했다 하지 않고 普遍妥當한 原理에 達觀했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原則的인 道通이 世俗化되면서 한 部門에 能通한 實技者도 「某氏는 어느 분야에 道通했다」 「某氏는 그 분야에 道士이다」라고 할 만큼 一般化되어 있다. 韓國人에게는 道通이 無理없이 통용되고 있으나 그 眞意는 먼저 밝혔듯이 「道」는 眞理요 大眞理는 宇宙 人生에 一貫하는 하나일 뿐이다. 이 眞理에 通해야 참된 道通이라 하겠으니 이 境地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東洋人은 이러한 소망에서 「道」를 愛用하고 있으나 과연 「唯一 道」를 得道하고 通達하여 道通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인가? 매우 의아스럽다.

이제 道通은 우리의 所望인가, 과거에도 있었던 사실로서 現在 未來에도 있을 수 있는가를 탐구하기로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辭典 풀이에 의하면 「道通」은 「事物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통함」이므로 可能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치를 깨달아 통함」에 그치지 말고 통달한 것을 用事할 能力을 갖고 實踐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龜山의 道通觀을 들어 보기로 한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청을 꾸짖고 가라사되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sup>1)</sup>

도통은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린다고 하였음은 각자 修道를 위한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말이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日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은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sup>2)</sup>

여기 儒道를 通한 사람은 七十二명이요 佛道를 通한 사람은 五百명이라 하니 統一된 大道通은 못되나 그 시대에도 儒學的 佛敎的 道通이 있었음을 立証함이다. 또한 道通에는 上才 中才 下才의 等級이 있어서 上才는 七日에 成道하며 任意 用事하고, 中才는 十四일에 하며 用事に 制限이 있고, 下才는 알기만 하고 用事を 못 한다는 道通의 用事 等差를 알게 되었다.

여기 의심스러운 節은 34節에 孔子는 七十二명만 通禮(通儒道), 석가는 五百名을 通佛道하였다 하고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니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고 하셨도다.』<sup>3)</sup>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다』하고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라

1) 典經 : 교운 제1장 33절 169面

2) 典經 : 교운 제1장 34절 169~170面

3) 典經 : 교운 제1장 39절 171~172面

한 도통은 어떤 도통일까 의문이 가기도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儒道 佛道에 通하는 道通은 있었으나 종합적인 道通은 아직 없었다는 말이라 하겠다.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하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4)</sup>

甌山の 道通은 儒道나 佛道 仙道만의 一部 道通이 아니라 儒 佛 仙道가 統合해서 綜合的 道通을 관정한다.

道人들은 한결같이 그 道通을 기다리고 있으나 甌山은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反問함을 보면 修道하는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케 된다.

儒佛仙등 一部 敎理로 도통한 사례들은 그 이후도 數 많을 것이다. 그 정도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때 世人들은 道通의 위대함을 모를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한 職業分野에서 技能工이 神技力을 발휘한다고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道通한 道士라고 世評한다.

이렇게 道通이라는 概念은 대중사회에까지 자연스럽게 常用되고 있다.

本 論文은 小局的 專攻 職業에 뛰어난 道通級 人士를 찾아 내어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儒道에 通한 七十二人이나 佛道에 通한 五百名에 못지 않게 뛰어난 道通人士를 들어 그 偉大함을 새롭게 評價하고자 한다.

甌山이 말씀한 과거에 없었던 後天世界에 열릴 道通은 아직 경험한 바 없어 斷定的 言明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歷史 속에서 한 사람의 大道通으로 風前燈火와 같은 國家의 運命을 구원한 實例를 밝히고자 한다.

과거에 있었던 道通도 그 偉力이 救國濟民하였는데 後天世界는 얼마나 人類平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試論하자는 것이 本 論文의 目的이요 大巡思想의 實想이다.

4) 典經 : 교운 제1장 41절 172面

우리 歷史上 道通으로 救國濟民한 証人은 곧 忠武公 李舜臣(1545~1598)이다.

筆者는 李舜臣을 再評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분을 壬辰 倭亂을 打破한 聖將聖雄으로 名將武士에게 無上의 尊號를 아끼지 않으며 「民族의 太陽」이라 호칭함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李舜臣은 단순히 武人으로 武術에만 能通해서 勝戰한 業績 하나로 평가하지 말고 人間性 全體를 通察할 때 「聖將」「聖雄」은 일 부분의 尊稱이며 韓民族만의 「太陽」視하는 것도 모든 人類가 배워야 할 부분을 빠트림이 된다.

그래서 筆者는 「聖將」도 「聖雄」 이상의 호칭으로 「將帥」나 「英雄」을 뺀 「聖 李舜臣」이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聖人 李舜臣」을 주린 尊稱이다.

현재까지 公認된 聖人은 東洋에 孔子 釋迦牟尼 西洋에 소크라테스 예수 四人이 있으나 韓國의 李舜臣은 그 人間性和 功績이 뛰어나 위 네분에 손색이 없음을 本論에서 立証하기로 한다.

오히려 公認된 네 聖人보다 次元이 높은 天文 地理 人事까지 道通한 새로운 聖人으로 世界의 知性人들이 추대해야 옳을 것이다.

龜山 말씀에 의하면 道通에도 上才 中才 下才의 三等差가 있다고 하였듯, 과거의 四大 聖人들이 과거의 道通聖人들이요 그 中에서도 李舜臣은 아직 公認되지 못한 最上才 道通聖人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天·地·人을 貫通하고 任意用事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後天世界가 열릴 때 道通君子는 現在와 같은 不正하고 타락되어 가는 世態를 미연에 방지 못 한 점을 바로 잡을 任務가 있다.

龜山은「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말씀처럼 혼자 道通工事하지 않고 主宰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드러있다.

李舜臣이 先天世界에서는 最上才 道通功績을 쌓았었지만 龜山에 의하여 열리는 道通眞境은 人類 歷史의 새로운 後天 創業期가 될 것이다.

여기 既存 聖人들의 道通은 李舜臣의 任意主宰를 제외한다면 많은 제한이 있었고 後天 上才 道通에 큰 希望을 갖는가.

그리고 그 主宰者인 甌山에게는 宗教的으로 天地公事 完成하기를 信賴한다.

## 本 論

### I. 歷史上 道通한 李舜臣 論

#### 1. 李舜臣에 대한 새로운 評價

##### 1) 李舜臣 非英雄 論

韓民族 모두 뿐아니라 韓國을 잘 아는 外國 知性人들까지 半萬年의 유구한 歷史가 400年前에 壬辰 倭亂으로 패망하여 단절할 風前燈火의 위기에 救國한 偉人이 李舜臣이라 公認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人이라면 그 偉業과 恩惠를 길이 敬慕하고자 尊稱을 「聖將」, 「聖雄」, 「民族의 太陽」등으로 하고 있으나 「聖雄」이 가장 公統적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 까닭은 「英雄」이라는 개념이 華麗한 업적을 쌓은 人傑을 지칭함인데 人類 歷史上 많지 않은 英雄 중에서 最上級 英雄에 限해서 「聖」字가 추가되어 「聖雄」이라 하겠다.

「聖雄」이라는 概念은 漢字의 本國인 中國에서도 實在 人物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여 호칭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자가 없어 호칭할 필요도 없어 그 語彙도 韓國人의 自作이 아닌가 알고 있다. 그래서 東洋 漢字 文化圈에서는 「聖雄」이라 하면 「李舜臣」이라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 해서 西洋 英語圈에서는 英語의 英雄을 「Hero」라 한다고 「聖雄」을 「Holy Hero」, 「Great Hero」라 사용하여 왔는지는 淺聞해서 못 들어왔다.

東洋에서 常用하는 「聖人」은 英語圈에서도 「Saint」로 널리 알려졌다.

따라서 「聖雄」은 無上의 尊稱같으나 「聖人」 下位級 호칭이며 李舜臣에게 는 해당되지 않을 뿐아니라 尊位를 낮춤이 된다는 것을 論證하기로 한다.

「英雄」에 대한 일반적인 辭典풀이로는 그 才能과 品性에 있어 拔群의 資

質을 구비하여 時代 社會에 큰 힘을 베푼 偉人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러한 부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즉 學術的으로 위대한 功績을 남길 수도 있고 發明家로서도 社會事業家로서도 宗教家나 芸術家로서 偉力을 베푼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 「英雄」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英雄의 屬性은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 특색이 있다고 본다.

첫째 獨自的 立身出世가 英雄의 出現 實態요

둘째 그 氣慨가 既存制度의 拘애를 탈피함이요

셋째 革命的 政治의 斷行이다.

一례로 이러한 三屬性을 갖춘 人物을 世界史에서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나폴레온」(Napoleon)을 들 것이다.

그는 1795년 파리에서 일어난 王黨의 폭동을 단시간에 진압한 軍才로 제1회 對佛大同盟國의 主力國인 오스트리아(Austria)征伐作戰에서 第三軍司令官으로 발탁되었으며, 主力軍인 第一 第二司令軍은 敗戰하였으되 그가 이끄는 第三軍만은 이태리方面에서 불과 26才의 青年將軍으로서 連戰連勝, 佛國民의 大환호를 一身에 독차지하였다. 그래서 佛國을 救出한 者 「나폴레온」뿐이라는 人氣가 집중되었을 때 不時에 武力으로 都督政府를 전복하고는 三人의 統領으로 구성된 統領政府를 조직하여 자신이 第一統領이 되었다.

그 治績 또한 歐洲列國을 和親케 하고 우선적으로 財政 窮乏을 구제하며 道路 運河를 修築하므로써 商工業을 勃興케 하였고 各급 學校의 증설로 教育의 보급에 힘썼으며 로마舊敎를 國敎로 人民生命 財産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나폴레온 法典의 편찬으로 後日 法律연구에 큰 공헌을 남기는 등 그의 偉業이 두드러지자 1802년에는 終身 統領이 되고, 1804년에 국민 일반 投票에 의하여 나폴레온 一世 帝位에 올랐다.

이야말로 英雄的 偉力으로 內治를 정돈하고 西歐大陸을 제패한 그가 英·獨·奧 여러 同盟國에게 라이프치크 大戰에서 大敗하고 1814년 엘바島에 流配되었다가 다시 脫出, 1815년 파리에 入城 再次 帝位에 올라 20萬 大兵을 이끌고 최후적 苦鬪를 벌이다가 워터루(Waterloo)에서 웰린톤(Wellington) 聯合軍에게 慘敗하고 南太平洋 一孤島 센트헤레나(Sent Helena)에서 그 생을

마치기까지 비록 英雄의 末路가 비참하였다 하되, 어느 누구도 그의 群拔의 氣慨와 그 雄志 그 威勢에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 國史에서 英雄을 찾는다면 누구를 지적할 수 있을까?

偏見일는지 모르지만 筆者는 東學의 敎祖 崔濟愚를 들고자 한다.

그는 半萬年 우리 歷史를 전연 새로운 양상으로 변혁하는 近世末의 主役을 한 때문이다. 數千年 내려오는 君主封建制度에서 自主民權運動을 들고 일어난 旗手이며 우리 歷史上 人間의 人間 지배에서 人乃天 人尊을 외쳐 人間 解放 社會 改革運動을 한 선구자 였었다. 그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大邱刑務所에서 처형되었지만 그 精神은 우리 庶民大衆에게 民主意志를 눈 뜨게 하였고 上流層과 爲政者들에게는 부패를 개혁치 않으면 不遠 쇠망의 길로 빠질 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崔濟愚는 그 立身에서 政治 社會 革命과 宗教 實踐運動은 우리 歷史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人物이라 하겠다.

그러나 李舜臣은 出身 家系로부터 成長과 出世 官僚軍務生活 하나도 革命的 英雄 類型을 찾을 길이 없다. 따라서 李舜臣은 英雄이 아니다.

## 2) 李舜臣의 경우

우리가 한 偉人의 傳記를 읽을 때 그가 英雄級에 속할수록 「痛快하다」함을 連發하게 된다.

만일 그 主人公이 義롭고 壯學하다 悲劇的 終末을 맺었어도 壯快한 生涯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 李舜臣의 傳記를 읽어 보면 萬人의 공통된 심정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鬱憤」(울분)이다.

물론 李舜臣을 그 당시 政局이 白眼視하였다는 對外的 鬱憤이 지배적이었었지만 그보다 李舜臣에 대한 울분마저 적지 않았었다. 우선 立身出世부터 살펴보면 그는 32세서야 당시 才士들의 出世 연령 치고는 늦은 나이에 겨우 武科에 及第하고는 十餘年이 지나도록 변방 末職을 전전하였다. 45세에 全羅道 巡察使 李洸이 人材를 알아보고 『그대와 같이 뛰어난 재주로써 이같이 펴이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하다.』하고 朝廷에 아뢰어 助防將을 임명케 하기



에 이르렀다.5)

그 해 12월에야 비로서 井邑縣監이라는 一地域의 책임자가 되었으니 大器 晩成이라기 보다는 官運도 무던히 없었던지 官界 榮達에 큰 관심이 없었던 지 適時를 당하고도 適材의 適所 登用은 지둔하기만 했다.

기실 李舜臣이 倭亂을 당하여 主役 맡게 된 것도 우연에 가까운 특별한 人間關係였다는 사실이었다. 즉 당시 權座에 있던 柳成龍과 竹馬之友라는 私緣으로 해서 柳成龍이 그 人間됨을 極口讚揚 推舉하지 않았던들 당시 같은 혼미한 政局에서는 도저히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6)

그러한 愚昧한 환경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는 二회에 걸친 白衣從軍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43세 되던 鹿屯島屯田官 때, 守備兵力이 부족하여 威鏡兵使 李鎰에게 누차 增援兵을 요청하였으나 너무 먼 國境地帶라고 불응하였고, 급기야 沙送阿 甲靑阿를 頭目으로 한 오랑캐의 큰 侵攻을 받게 되었다.

李舜臣은 先頭부터 모두 射殺하고 포로된 동포 60명까지 빼앗아 오는 戰功을 세웠건만 李鎰은 上官으로서의 失策을 은폐하고 部下의 名聲이 시기스러워 敗戰이라는 罪目으로 處刑하려 하였다. 그러나 正言으로 겨우 生命만 보존, 白衣從軍케 되었다는 것은 당시 官界 일단을 짐작케 하는 것이지만, 讀者의 울분을 막을 길 없다.7)

敗戰이 아니었다면 無罪를 선고했어야 옳고, 勝戰이 확인된 이상 厚賞했어야 마땅했다. 謀陷 奸臣官 李鎰이나 朝廷 君臣輩가 똑같은 部類들임을 개탄하게 한다.

다음 元均의 謀陷으로 투옥, 極刑을 겨우 면하고 二次 白衣從軍하게 된 것을 世人이 너무나 잘 아는 일이라니와 무엇보다도 우리의 울분을 자아내는 사실이 또 있다. 그것은 한시도 잊지 않고 극진히 사모하던 母親의 喪을 당했을 때의 일이다. 安葬도 못하고 國命이라 해서 殯所만 마련한지 三日만에8) 任地로 떠나야 했으니 이런 處事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5) 李忠武公全書 下卷 28面

『己丑春全羅巡察使李洸 以公爲軍官 卽歎曰以君之才抱屈至此可惜. 卽秦公爲本道兼助防將…』

6) 이은상 지음 「성웅 이순신」 47面 參照

7) 李忠武公全書 下卷 27面 參照

『…但囚之事聞, 上曰李某非敗軍之類 白衣從軍 使之立功…』

그처럼 일각을 다룰만큼 절실히 필요한 李舜臣이었다면 어찌 近 一ヶ月(3月4日 投獄 4月1日 出獄) 投獄시킬 수 있었으며, 아니 모함 그대로 믿고 處刑해 버렸으면 어찌했었을 것이었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모든 軍權도 박탈한 그에게 투옥기간만큼의 特赦配慮가 있을 리가 없었다.

그 日記를 본다.

『길을 일찍 떠나며 어머님 영정 앞에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라 어찌하라!  
天地間에 날 같은 事情이 또 어디 있을 것이라!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sup>9)</sup>

여기에서 절실히 느껴진 것이 「李舜臣은 英雄이 아니다」라는 斷案이다. 英雄이라면 그의 정당한 氣慨는 물불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偉力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요 것처럼 內心 自制로서 既存因習이나 法令 앞에 억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 自制는 결코 英雄의 속성이 아니라 高次元의 道德的 제어인 것이다.

우리의 울분은 이뿐이 아니다. 亂中日記를 통독할 때 소위 國事를 전담한다는 政客들의 非理에 많은 고민을 억제하여야 했으며 그 휘하에 있는 元均 때문에 얼마나 苦心하였는지는 日記 가운데 무수히 나온다. 英雄의 氣慨라면 三道水軍統制使라는 그의 權限으로 능히 한 칼로 處斷하였음직도 하다. 최소한 上告로서(狀啓) 國法에 의뢰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元均과 對面했을 때 어떠한 內的 苦惱도 內色한 바없이 자제했다. 陰害를 傳聞할 때면 「皆忘」이라고 일축하였지만 끝내는 그 모략에 자신이 파탄되고도 태연하였으니 그것이 英雄과 全然 類를 달리 함이다.

慾心 갈아서는 李舜臣도 「나폴레옹」처럼 權謀術數로서 조기 登場하여 壬辰 四月 倭軍의 첫 釜山 上陸 직전에 海上에서 大破할 준비를 갖추어 亂을

8) 母喪은 丁酉 四月十二日 당하였으나 訃音은 同月十三日에야 듣고 十六日에 靈柩를 집에 모셨다. 그리고 十九日 길을 떠나야 했다.

『亂中日記』: 丁酉 四月 十三日부터 同 十九日 參照

9) 亂中日記: 丁酉 四月十九日 己卯時

『早出登途 告靈筵號哭, 奈何奈何, 天地安有, 如吾之事乎, 不如早死也...』

事前 防止하여 주었음직도 하다. 혹은 대담하게 무능한 王室과 부패한 權臣들을 一掃하고 새로운 革命的 救國 態勢를 갖추어 주었음직도 하다.

그렇다면 李舜臣은 英雄의 範疇에 해당한다. 그렇고도 救國 이후 어떠한 私慾의 延長없이 생을 다했다면 偉大性을 가하기 위하여 「聖雄」이라 稱할 만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제기되니 만일 그 偉人이 平和時代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함이다. 그 時代는 그러한 英雄的 價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存在價値가 喪失이 되고 만다. 이것이 곧 英雄의 概念 中 유일한 屬性으로 집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英雄은 반드시 그 時代 그 社會라는 制約條件 밑에서 성립되는 偶發的 概念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通俗的으로 時代가 英雄을 낳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反問이 있을 것이다. 즉 李舜臣은 壬辰倭亂과 결부된 人間으로 想念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時代가 아닌 平和時代에 태어났다면 누가 그를 再論이나 하게 되랴 라고. 李舜臣도 그 時代의 人物이었으니만큼 英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물론 타당한 말이다. 그의 前歷을 보더라도 壬辰亂이 아니었다면 어느 조그만 地方 縣監, 出世했어야 兵使를 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縣監, 牧使, 兵使, 統制使, 白衣一兵등은 어디까지나 時代가 그에게 規定하는 對外條件들이요 李舜臣의 本質은 아닌 것이다. 本質은 어느 時代에 태어났던 어느 階級에 職하였던 변치 않고 一貫하는 그 個性일 것이다.

만일 亂時에 처해야만 그 偉力을 발휘할 個性이라면 모든 時間性 중의 一面性인 亂時 收拾型으로 人間性 中の 威勇性이 支配的 品性이라야 할 것이다.

威勇性의 品性所有者가 平和時代에 처했다면 그 빛이 드러날 리 없음은 물론이요 그 威勇을 발휘않는 것이 그 時代에 適格 處世이다. 만일 그 발휘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亂世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것이 곧 英雄의 속성이 犯하기 쉬운 단점이며 장점이기도 하다. 李舜臣은 모든 굴욕과 울분을 참아왔다. 이것은 威勇性이라는 英雄의 속성의 소유자가 감내할 수 없는 處身인 것이다. 그 時代 社會에 저항하려는 革命的 氣品이 결코 아니라는 証

左이다. 철두철미 傳統社會에 완숙한 傳統的 人間型임을 立証함이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最善을 다하는 傳統的 人間이요 해야 할 일 하고야 만은 완벽한 人間이면서 革新型 人間은 아니었다.

이러한 李舜臣을 英雄으로 표명함은 큰 잘못이다.

이 「英雄」이라는 概念을 다시 英語를 통해서 語源的으로 고찰하여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英語에 「英雄」을 「Hero」라 하지만 「Hero」는 英雄이 주된 뜻이되 勇士, 軍人, 神人, 半神의 勇士등 그 威勇이 神과 같은 人間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것은, 어느 小說이나 연극에 있어서 「男子 主人公」을 「Hero」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小說이나 연극에 있어서 主人公이 전체의 獨步的 위치에 있다고 해서, 즉 作品 중의 死活을 독점한 作品 중 英雄格에 있다고 해서 「Hero」로서 英雄과 主人公을 並用하고 있다고 보겠지만 이보다는 作品의 主人公이야말로 現存的 存在요 그 상황 안의 유일한 存在者라는 뜻이다. 作品의 구체적 상황을 빼고 主人公이 성립될 수 없듯 그 時代性を 빼고 英雄이 성립될 수 없음을 反證的으로 實感を 준다. 그러므로 英雄은 결코 抽象名稱일 수 없고 理想的 人間型일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 社會에 혁혁했던 그 時代의 主人公인 것이다. 主人公이 時間과 空間을 초월해서 存在한다면 그 語彙의 와해가 되어버리고마는 것처럼 英雄 또한 時·空을 초월해서 그 支配力이 지속되지 못하는 지극히 그 현실 속에 제약된 點的인 存在者다. 이렇게 볼 때 李舜臣을 「英雄 中の 英雄」이라 해서 「聖雄」이라 公式的 規定하였음은 永遠한 民族精神의 師表요, 汎 人間像을 短時的 概念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主人公의 役割이 끝날 때 作品은 끝나고 英雄도 그 時代와 함께 사라지는 運命인 것, 李舜臣을 그 범주에서 지금까지 이해하여 왔음은 是正해야 옳을 것이다.

## 2. 仁者로서의 李舜臣

「仁」이라는 德은 孔子가 開發한 독특한 儒敎 최고의 人格像德이다.

바꾸어 말하면 孔子는 仁道에 通한 聖人이다. 數 많은 제자들에게 仁道를 인도하였고 자기의 水準에 가까이 따라 왔던 제자로는 顔淵이 있었으나 三十세 前에 요절하였고 仁에 道通한 제자들은 七十二名이 된다고 한다.

그 후 近 二千五百年 이래 儒道로 道通한 사람이 어느 나라의 누구라고 判定할 사람이 없어 言及하기도 어렵다. 認定할 사람이 없다해서 그 資格이 있으면서 有資格者를 無資格者라 速斷한다면 無識한 獨斷이 될 것이요 後世 사람들이 多角度에서 연구하고 檢定하여 公正하게 聖人級 道通君子를 추대하는 것은 後世와 未來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本 論文에서 그 의도로 이 나라에 道通 聖人을 論證하기로 한다.

李舜臣은 儒道로 道通하였으나 儒學을 연구하여 學問的으로 達觀한 學者가 아니다.

實踐哲學으로서의 儒學이기 때문에 李舜臣은 그 大義를 通하였으면 곧 實踐하는 內實이 결부한 儒學의 目的像이라 하겠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行錄의 일단을 옮긴다.

『…初從伯仲二兄 受業儒業, 有才氣 可成功 然 每有投筆之志…』<sup>10)</sup>

『…及長 折節 恭謹 讀書通大義 然 不屑佔畢業 遂從武學…』<sup>11)</sup>

李忠武公은 두 兄들과 儒學을 배우되 글을 읽으면 大義를 通達하였다. 그러나 文字만 새기는 즉 해석하는 공부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마침내 武藝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儒道에 通하여 聖人이 되자면 仁者가 되는 것이다. 百卷·千卷의 책에 능숙하다면 學者는 될 망정 目的的 人間像인 仁人이라 할 수는 없다. 즉 「仁」이라는 글字는 간결해서 「人」변에 「二」字가 결합된 「어진 인」, 「사랑 인」, 「사람 인」이지만 千 萬卷으로 해설을 잘 하는 것보다 실질로 「어질고」, 「사랑하는」사람만 못 하다.

여기, 글·文章에 앞서 그 內容인 本質的 仁의 實踐者 仁人이 目的像임을 깨닫게 되었고, 一章 主題의 人物 李舜臣이 과연 人道에 通하여 仁人이어서 道通한 聖人인가 알아 보기로 한다.

10) 李忠武公全書 下 從子 李芬 行錄 17面 參照

11) 上同書 128面 參照

仁祖 二十一年 癸未(1643年) 諡號 내리는 諡狀 大提學 李植 지음

### 1) 私生活를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爲仁의 根本은 孝悌에 있다 하였으니 매우 평범하며 順理的인 말이다. 人間 關係 중 가장 기본인 父母 兄弟에게 人間愛를 베풀지 못하는 者가 疎遠한 對人 關係에 원만하기를 바란다면 마치 基礎工事 없는 高層 建物과 같은 格이라는 비유를 자주 써 오고 있다.

人間됨의 바탕을 알아보는 것도 人倫의 基本關係에 얼마나 진실한가에서 判明이 된다.

亂中日記를 읽고 나면 人間 세상에 李舜臣만큼 孝誠이 지극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감탄을 금할 길 없다.

그 어머니를 軍務 중에도 항상 잊지 않고 걱정하는 孝誠, 고향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安寧하심을 少女처럼 기뻐하는 순수한 人間性 앞에 머리가 숙여진다.

『聞天只 安寧, 多幸 多幸』

이라는 句節이 日記 가운데 무려 82회나 나온다.<sup>12)</sup> 이 정도 임을 알게 되면 筆者의 표현이 결코 지나침이 아니라고 首肯하리라 생각한다.

李舜臣의 어머니에 대한 慕情은 그 純粹하기가 마치 품에서 젖빨던 乳兒가 어머니를 떨어졌을 때를 연상케 하리만큼 간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언제까지나 어머니 밑에서는 어린 아해 같으려 하나 어느덧 몸은 늙어 白髮이 나오니 다음과 같은 日記를 쓰게 되었다.

『...아침에 흰 머리 10여개를 뽑았다. 흰 머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위로 늙으신 어머니님이 계신 때문이다...』<sup>13)</sup>

어찌할 수 없는 生理的 老化現象마저 어머니 앞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孝子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일단의 心情만으로도 孝心의 極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祭祀날이나 生辰날에는 그 어버이 追慕하

12) 『聞天只 安寧, 多幸多幸』 亂中日記를 筆者가 조사한 統計로 82회였다.

13) 亂中日記(以下 日記라 함) 癸巳 6月 12日 乍雨乍晴

『...朝拔白十餘莖, 然, 白者不厭, 但上老堂故也, 終日獨坐...』

는孝心이얼마나간곡한가다음日記를통해서살펴본다.

甲午年 11月 15日 晴

『따뜻하기 봄날과 같았다. 陰陽이 질서를 잃은 모양이니 그야말로 재변이다. 아버님 祭祀날이라 公務를 보지 아니 하고 홀로 방 안에 앉았으니 슬픈 회포를 어찌하라...』<sup>14)</sup>

乙未 7月 2日 晴

『이날은 先親의 生辰날이다. 슬픈 생각에 눈물 지었다...』<sup>15)</sup>

숨 가쁜 軍營 속에서도 돌아간지 이미 오래인 아버지의 生辰日과 忌日에  
는 마음 속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 誠心 이것이 어찌 진수성찬으로 虛  
禮虛飾하여 展示 孝道하는 부류와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 孔子  
의 禮論을 거듭 음미하게 된다.

『禮與其奢也，寧儉，與易也 寧戚』(論語：八佾)

禮란 사치스런 形式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라 하고 또 禮文에 능숙해  
서 公式적으로 禮法만 簡易하게 이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禮法에 얽매임없다  
하더라도 惻隱한 心情으로 성감이 禮의 本質을 다 함이라는 말씀이다.

특히 다음 日記文을 보면 李舜臣은 철두철미하게 儒敎의 정신 그대로다.

『...都元師의 軍官이 有旨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宣傳官편에 들으니 統  
制使 李舜臣이 아직도 喪主의 禮法대로만 지키고 방편을 좇지 않아 여  
러 장수들이 민망히 여긴다고 하니 私情이야 간절하지만 國事가 한참  
바쁘고 옛사람 말에도 戰爭에 나가 용맹이 없으면 孝가 아니라 하였고,  
전쟁에 나가 용감하다는 것은 素饑이나 먹어서 氣力이 곤비(困憊)한 자  
로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라 禮記에도 원칙을 지키는 經이 있고 방편  
을 취하는 權이 있어 꼭 원칙대로만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 卿은 내 뜻  
을 생각하여 素饑를 먹는 것을 치우고 방편을 좇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울러 고기 반찬을 하사하셨음으로 더 한결 感慨無量했다...』<sup>16)</sup>

14) 日記 甲午 11月 15日 晴

『溫和有同春日，陰陽失序，可謂災矣，大忌不出，獨坐房中。懷慟可言可言...』

15) 日記 乙未 7月 2日 晴

『是日先君辰日悲戀懷想，不覺涕下...』

16) 日記 丁酉 12月 5日 晴

『都元師軍官持有旨來 則今因宣傳官聞統制使 李舜臣尙不從權，諸將以爲悶云，私情

이 文章을 읽고 나니 不然듯 떠오르는 對句가 있었다.

孔子와 같은 聖人으로도 크게 怒氣를 띠우며 처음으로 「不仁者!」라는 號인을 찍은 구절이다.

『宰予가 父母의 三年喪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물었을 때 孔子는 「그대가 父母의 喪을 당하고 好衣好食을 하여도 마음이 편하던가?」反問하니 宰予의 答 「그렇구 말구요」라 하니 孔子는 「네 마음이 便安하거던 좋을 대로 해라. 그러나 君子가 父母의 喪을 당하면 성찬을 먹어도 달지를 않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거움지 않고 편하게 있을래야 편안치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마음이 편안하다니 네 멋대로 하려느냐.」 이 말을 듣고 宰予가 나가 버리니 孔子는 「宰予야 말로 不仁者로구나! 子息이 낳은지 三年 뒤에라야 어버이 품밖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三年喪이라 함은 天下의 通禮가 된 것이어늘 宰予는 그 父母로부터 三年의 사랑도 못 받았다는 말이나?」<sup>17)</sup>

不仁者 宰予와 李舜臣과는 極과 極의 대조가 아닐 수 없다.

李舜臣의 경우 王命으로까지 素食을 폐하고 肉饌을 하사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儒敎의 教훈을 추종하여서가 아니라 그 정신이 이미 내 本 心情이며 평소 극진히 섬기던 孝心으로는 「食旨不甘하고 聞樂不樂하여 居處不安」하고도 남음이 있는 人間됨이었다.

위로 어버이에게 孝誠이 극진한가 하면 아래로 그 子孫에게도 남달리 仁慈한 아버지였다.

아들이 더위를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괴롭고 답답하여<sup>18)</sup> 심지어 그 괴로움을 풀 길이 없어 占을 쳐 보는 李舜臣이었다.<sup>19)</sup>

雖功，國事方殷，古人曰 戰陣無勇非孝也。戰陣之勇 非行素氣力困憊者之所能爲，禮有經權，未可固守常制，卿其敦諭予意，使之開素從權事 有旨拜持權物尤用悲慟悲慟…』

17) 論語：陽貨

『宰予三年之喪期已久矣。…子曰食夫稻衣夫綿 於女安乎。曰安。女安則爲之，夫君子之居喪，食旨不甘。聞樂不樂，居處不安故不爲也。今女安則爲之。宰予出，子曰予之不仁也，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夫三年之喪，天下之通喪也，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18) 日記 甲午 6月 15日 晴

『…又因諺書 則菴重痛暑証云 煎悶煎悶』

19) 日記 甲午 7月 13日 雨雨

『獨坐念菴兒病勢如何，擲字占之 則卜得如見君王卦，極吉 再擲如夜得燈…』



또 뱃길 멀리 아들을 떠나 보내고 애태우는 父情의 一端으로

『아들 쫓가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잘 같지 모르겠다. 심회를 어찌 다 말 하라.』<sup>20)</sup>

그 勇猛스런 將帥의 內心 어느 구석에 그토록 따뜻하고 섬세한 父情이 숨 어있는지 저윅히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불행히도 末子 薙이 戰死했을 때의 悲痛함이란 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처절한 슬픔을 토한 것이었다.

그 哀傷의 極함은 코피를 한 되 가까이 쏟았다고 하였다.<sup>21)</sup>

흔히 武士는 대범하여 슬픔도 억제하는 強靱性和 冷酷性이 있다 하지만 李舜臣은 天地를 뒤흔들 용맹과 그 對極인 仁慈 柔弱한 性情의 소유자였기에 다음과 같은 悽絶 無比할 日記를 남겼다.

『...겉봉을 대강 뜯고 예(次男)의 글씨를 보니 거죽에 「慟哭」 두 字가 쓰여 있어 薙의 戰死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慟哭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仁慈하지 못 하시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다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라. 天地가 캄캄하고 해 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 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罪 네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있은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地下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만 네 兄, 네 누이, 네 어머니가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아직은 참고 連命이야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形相만 남아 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루밤 지내기가 一年 같구나....』<sup>22)</sup>

이 斷腸의 哀痛 앞에 天地神明인들 感淚치 않으랴!

20) 日記 : 丁酉 10月 2日 晴

『豚薈以家屬生死探見事上去, 獨坐船上, 懷思萬端.』

21) 日記 : 丁酉 10月 19日 晴

『...昏鼻血出升餘, 夜坐思淚, 如何可言, 今世英靈, 豈知終爲不孝之至此矣, 悲慟摧裂 難抑難抑』

22) 『...夕有人. 自天安來傳家書 未開封骨肉先動 心氣慌亂 粗展初封 見예書 則外面 書痛哭二字 知薙戰死 不覺墮膽 失聲痛哭痛哭 天何不仁之如是耶 我死汝生 理之常也. 汝死我生 何理之乖也 天地昏黑 白日變色 哀我小子 棄我何歸 英氣脫凡 天不留世耶 余之罪 禍及汝身耶 今我在世 竟將何依 號慟而已 度夜如年』

이 얼마나多情多感하며 極盡한 어버이였든가.

父母 子息뿐 아니라 家庭 모두에 至誠스러운 家長이었다. 그 夫人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얼마나 아내도 소중히 여겼던가를 알 수 있는 日記에,

『앉았다 누었다. 잠을 못 이루고 촛불을 켜둬 뒤척이며 지새웠다. 이른 아침 세수하고 고요히 앉아 아내의 病勢에 대한 占을 쳤더니 如僧還俗의 卦如를 얻고 다시 쳤더니 疑得喜卦를 얻었다. 아주 좋다. 또 病勢가 나아 갈 것인지에 대하여 쳐보니 女謫見親卦였다. 이 역시 오늘 중에 소식을 받을 징조다.』<sup>23)</sup>

다음 날 日記에,

『...저녁 때 探船이 돌아 왔는데 아내의 病이 떨어지긴 하나 몹시 弱하다 하니 걱정스럽다.』<sup>24)</sup>

이밖에 丈人 丈母의 忌祭日에는 公務를 보지 않았다는 기록등으로 미루어 公職에 嚴正했던 李舜臣으로 해서는 얼마나 그 아내를 극진히 아꼈던가를 짐작케 하는 一面이다.

이 뿐이가, 兄弟間의 友愛도 돈독하기 그지 없었으니 먼저 作故한 兄들이 남긴 조카를 親子息 이상 보살폈다.

井邑縣監 赴任時 여러 조카들을 거느리고 갔을 때 或者는 家眷濫率이 아니라 하니 李舜臣은 슬픈 얼굴 빛으로

『내가 차라리 國法에 罪를 지을 망정 의지할 곳 없는 것들을 차마 버려 둘수는 없다.』<sup>25)</sup>

고 하여 듣는 이들이 「어진(仁)이라」하였다는 것이다.

23) 日記 : 甲午 9月 1日 晴

『坐臥不寐 明燭展轉 早朝洗手靜坐 以夫人病勢 卜得 則如僧還俗 再得如疑得喜之卦 極吉極吉 又以病勢減否來告與否 則卜得如謫見親之卦 是亦今日內得聞好音之兆...』

24) 日記 : 甲午 9月 2日 晴

『...夕探船入來 則夫人向歇云 而元氣極弱 甚可慮也』

25) 李忠武公 全書 下 110面 117面 參照

『...爲守令 撫育亡兄遺孤 或以濫率非之, 公泫然曰 吾寧得罪國法. 不忍舍此無依, 聞者知仁』

孟子도 惻隱之心, 차마 못 보는 不忍之心을 仁之端이라 하였거니와 이것은 仁者의 一面性を 들어냄이다. 또한 조카들의 婚事를 優先하느라고 자기 子女는 婚期마저 늦추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처럼 孝와 悌를 어떤 理論으로 말한 것은 볼 수 없어도 그 行蹟은 萬說을 초월한다. 論理上으로는 孝 悌가 仁의 기본이 된다고 하겠지만 李舜臣의 경우는 仁者이기 때문에 萬古에 드문 孝悌의 德을 베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公務를 통해서 본 仁者의 面貌

私生活를 통해서 본 仁者的 面貌는 仁의 內的 考察이었다면 公務를 통해서 본 仁者的 面貌는 그 外的 考察이라 하겠다.

한 家庭의 家長으로서 無缺한 李舜臣은 部下를 통솔하는 將帥로서도 仁慈하되 正義롭고 嚴格하며 信實하고 勇猛하되 슬기롭고 致密하되 能熟하며 어디 不足함을 가려볼 수 없는 諸德의 完璧을 期한 爲人이었다. 이하 日記와 實錄을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名相 李元翼이 都體察使의 任을 맡고 全羅道에 이르렀을 때 海軍들의 무수한 呼訴文이 山積한 것을 體察使가 그것을 일일이 처리 못하는 것을 李舜臣은 잠깐 사이에 結末을 지워버려 梧里와 같은 名人으로도 그의 能熟한 執務 處事に 놀랐다는 것이며 兵士들의 士氣를 돋구기 위하여 都體察使로 하여금 營中 盛宴을 베풀고 有功者에게 厚賞을 나리게 하니 온 軍中은 喜悅로 冲天하였다 한다.<sup>26)</sup>

部下가 身病이 있으면 問病 위안하고 근심 걱정한 예는 한 두 번이 아니며<sup>27)</sup> 部下가 困境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는 차마 가슴 아파 듣지를 못하겠다는 心情, 部下의 부당 行政措處에 그를 救出코자 狀啓를 올려 억울함을 풀

26) 李忠武公 全書 下 43~44面 參照, 以下「全書」라 함

27) 日記: 癸巳 3月 5日 晴

『風色甚惡 順天以病還歸 故朝親見而送…』

日記: 乙未 6月25日 晴

『…夕與朴助防將 同往 忠清水使處 看其病勢 則多有可怪之事』

日記: 乙未 7月 3日 晴

『朝往 忠清水使處 問病則大歎云…』

어주는 등<sup>28)</sup> 限定된 紙面에 모두 열거할 수가 없다.

어찌 자기의 部下에 뿐이었겠는가? 困窮한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sup>29)</sup> 전 투중에도 피란 민중을 언제나 보살펴 주었으니 그가 가는 곳에 민중은 안도를 찾게되고 그가 떠날 때 荒廢를 위협받았다.

그 實例로 元均의 모략에 의하여 서울로 압송되든 날 庶民 男女老少가 길가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使道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이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sup>30)</sup>

라고 울부짖으며 救世主를 놓지는 哀絶을 토로하는가 하면 獄에서 풀려 白衣從軍 할 때 피난민들이 길에 雲集하여 외치는 소리

『이제는 살았구나! 우리 使道 오셨으니...』

라고 기뻐 날뛰며 妻子는 천천히 뒤따르라 하고 壯丁들이 모여드는 數가 120餘名이나 되었다.<sup>31)</sup>

이러한 李舜臣이 戰死하였을 때 뒤늦게 알게 된 將卒들의 慟哭은 天地를 진동하게 하였고 그 靈柩가 古今島를 떠나 牙山으로 가는 驛路에는 무수한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하기 그들 親族의 죽음을 애통하듯 하였다 한다.<sup>32)</sup>

筆者는 直覺的으로 떠오른 것이 儒敎의 理想政治인 仁政을 실현하는 王道政治였다.

일찍이 孟子는 暴力國家 對 仁政國家의 對比에서 前者는 霸道政治라 하고 後者는 王道政治라 하여 그 根本 性格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以力假仁者霸，霸必有大國。以德行仁者王，王不待大。湯以七十里，文王以百里。以力服人者 非心服也，力不贍也。以德服人者中心悅而誠服也。如七

28) 日記：甲午 1月 19日 陰而晚晴

『...所非浦因聞嶺南 諸船射格 幾盡飢死 慘不忍聞...』

29) 日記：丙申 9月 13日 晴

『...仲翼多言艱窘 故脫衣給之 終日話』

30) 全書 下 46面 參照，從子 李芬 行錄 中에서

31) 全書 下 47面 參照，從子 李芬 行錄 中에서

32) 全書 下 60面 參照，從子 李芬 行錄 中에서

十子服孔子也.』(孟子：公孫丑 上)

武力으로 仁을 假託하는 者は 覇者요, 覇者는 반드시 大國을 필요로 하고, 德으로 仁을 行하는 者は 참된 王者요 王은 나라가 肥大함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湯王이 開國을 둘레 七十里, 文王은 둘레 百里로 시작하였다. 힘으로 백성을 복종하는 者は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 하고 오히려 부족한 힘을 더욱 필요로 한다. 德으로 백성을 복종시키는 者は 마음 속으로 기뻐하여 진심으로 따르니 孔子의 제자 七十명이 感服하던 경우와 같다고 한다.

儒敎의 政治理想인 王道政治는 곧 聖君政治이니 그 실현은 「以德行仁」에 있고 以德行仁者는 中心悅而誠服하기 때문에 백성이 雲集하게 된다. 孟子는 三四千年前 中國에서 實例를 찾았지만 우리는 德으로 仁을 베풀어 백성들 마음속 깊이 眞情으로 感服하여 모여드는 仁政 곧 聖政의 實例를 韓國 李王朝때 李舜臣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

그는 一武官에 불과하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된 것은 그 德이 仁을 行하였다는 證據다. 그러나 仁이 어질다해서 결코 柔弱한 德目이 아니다. 孔子 말씀에 「仁者라야 必有勇이라」하였으니 仁者만이 眞正한 勇猛스런 힘을 간직하였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見義不爲 無勇』(論語：爲政)이라 하고 『君子 義以爲質』(憲問)이라 함을 판단할 때 참된 人間은 正義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正義의 힘이 폭발할 때 勇猛스럽다는 뜻이다.

만일 이 正義에 반역한다면 가차없이 處斷하는 것이 참 勇氣이다. 不正을不容하는 자세가 仁者의 모습이다.

李舜臣은 公務執行에 있어서 그것이 뚜렷했다. 亂中日記 가운데 部下의 잘못이 있으면 輕한 者は 곧장치고 重罪者 특히 전투중 도망병에게는 極刑으로 목을 쳐 높이 매달은 등(梟首) 罪를 줄이 무려 42회나 있었다. 이것을 보아도 그 品性이 얼마나 峻嚴했으며 추호도 不義와 타협할 줄 모르는 仁의 眞面貌를 찾게 된다. 그러므로 통솔에는 一絲不亂 軍의 紀律이 바로 섰다. 그의 臨戰 必勝의 要訣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一般社會에서도 節度(法·禮節)가 整然할 때 안정된 福祉社會가 실현되는

것도 이 原理인 것이다.

『仁者 必有勇』이라는 孔子의 교훈이 論理上 타당성은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眞正 현실로서 立證되기는 孔子 이후 2000年만에 이 나라 李舜臣에 의해서다.

衆寡不敵의 常識을 뒤엎고 連戰 連勝할 수 있었음은 그가 眞仁者이기에 超人力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超論理이기도 하다.

이는 儒敎의 大成者 孔子와 견주어 어찌 遜色이 있는 偉人이라 하겠는가! 아무리 옳은 일도 理論으로 說하는 이와 理論에 앞서 實踐으로 立證하는 이가 있다면 後者를 높히 評價하듯 仁者 李舜臣의 경우가 그런 분이라고 하겠다.

### 3. 天命을 完遂한 道通聖人 李舜臣

李舜臣을 研究하는데 가장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天命思想일 줄 안다. 이 天命思想이 儒敎에 있어서도 頂上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性格이다.

孔子가 「天」을 至高의 目的境으로 생각하되 極의 表現을 要할 때에 한해서 찾았든 것과 같이 李舜臣에게 있어서도 그러 하였다.

李舜臣이 鹿屯島 屯田 小任을 맡고 있을 당시 兵使 李鎰이 功에 대한 嫉妬와 자신의 職務 非行을 음페코자 그를 刑殺하려고 할 때 눈물로 同情하는 軍官 宣居怡에게 正色하며 하는 말, 『死生 有命』이라 하였다.

또 元均의 모함으로 投獄되어 사태가 절망적이니 이 일을 어찌해야 옳으나 하는 同情者들에게 역시 같은 答, 『死生 有命 死當死矣』라 하며 泰然할 수 있었던 것은 孔子의 말, 『生死有命 富貴在天』(論語 : 顏淵)의 眞義 그대로 하겠다.

孔子도 이처럼 生死가 天命에 있음을 굳게 믿었기에 두 차례 困厄(匡人之亂과 桓魋의 亂)속에서도 毅然할 수 있었던 것이 兩 大人의 경우가 너무나 흡사하다.

즉 孔子가 匡나라 땅을 통과할 때 陽虎라는 暴徒로 誤認되어 포위당하여 生死를 위협받을 當時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論語：子罕)

하늘이 이 文을 (斯文이라 하면 현대적으로는 人類文化 또는 人間된 尊嚴한 文化) 없애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匡인들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였고 또 宋나라를 지날 때 뜻밖에 桓魋의 迫害를 받아 生死가 위급한 기로에 있을 때 弟子들은 그 장소를 도피할 것을 간청하였지만 孔子는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論語：述而)

하늘이 나에게 德을 傳承하게 하였는 데 桓魋 따위가 감히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고 天命的 使命에 泰然하였다.

무릇 天의 思想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天 앞에 運命的으로 放任하는 消極性이 있고 다음은 天意를 實踐하여 天意에 報答하겠다는 積極性이 있다.

이것이 곧 誓天思想으로서 天意를 실천하여 天意에 부합되는 즉 天과 我가 一致되는 境地에 도달하는 것이다. 天意를 大覺하고 天意를 실천하는 者에게는 天이 그를 보호하고 힘을 북돋우어 주며 絕對力 발휘가 가능하다.

이 뜻을 알고 다음 李舜臣의 長劍에 새긴 劍銘을 대해 보자.

『三尺誓天 山河動色，一揮掃湯 血染山河』

三尺 칼로 하늘에 맹서하니  
 大地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쓰러버리니  
 피가 江山을 물들인다.

天意를 거역하고 殘忍無道하게 罪없는 이 나라 萬百姓을 처참한 비극에 빠뜨리니 天의 激怒를 이 내몸이 대신하여 痛快無比하게 天賊 徒黨을 소탕하고야 말겠다고 天 앞에 盟誓함이다. 그렇기에 天이 창조한 森羅萬象까지도 어찌 이 내뜻을 通察하지 않으랴!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바다에 맹서하니 魚龍이 떨고  
山에다 맹서하니 草木도 感動터라.

이 詩句는 天地神明까지 達通한 天人合一의 大覺者의 경지에서 吐露된 氣慨의 表明이다.

이처럼 天의 힘으로 내 힘을 삼은 李舜臣이었기 때문에 그 勇猛이야말로 超人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朝廷에서 王은 全滅상태의 우리 水軍을 廢하고(元均이 水軍을 全敗함) 陸軍과 合勢할 것을 命하자 그는 毅然히

『아직도 우리의 배가 12척이 남아 있는데 어찌 水軍을 廢할 수 있으리오, 微臣이 죽지 않은 限 敵은 감히 우리를 殲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sup>33)</sup>

라는 狀啓를 올릴 수 있었다. 7年이나 계속하는 尤레없는 大戰을 12척의 남은 戰船으로 對戰하겠다는 그 氣魄, 이것은 汎人으로 상상 못할 絶對力을 배경한 發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發言이 汎人の 無根한 豪言이 아니라 天이 保證하는 하늘의 뜻이었음이 丁酉 9月 16日 鳴梁 앞 바다에서 證明되었으니 12척 對 比敵의 대상이 양되는 330여척의 敵船과의 海戰에서 痛快無比하게 敵을 大破하고 我軍의 12척은 의연히 개선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人類 古今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大勝捷이야말로 天의 保證을 받은 超人の 偉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李舜臣 자신이 奇蹟的 이 大勝을 人力으로 完遂했다고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이었음인지 다음 日記에서 밝혀준다.

이 날의 日記는 戰況을 기록하여 長文이나 그대로 옮긴다.

丁酉 9月 16日 甲辰 晴

『이른 아침에 別望軍이 나와 보고하니 「敵船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배를 향하여 들어온다」고 한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니 敵船 330여 척(草稿에는 133척)이 우리 배를 에워싼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軍士로 많은 敵을 대적할 수 없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모두 회피할 꾀만 내는데 右水使 金億秋는 벌써 아득한 곳으로 물러나

33) 忠武公 行錄 李芬지음에서 全書 下 48面 參照



있었다. 나는 노를 바삐 저어 앞으로 돌진하며 地·玄字로 각종 총통을 마구 쏘아 바람 우레 같이 터치고 軍官들도 배 위에 가득 서서 빗발 같이 쏘아내니 적도들은 당적하지 못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나 그래도 여러 겹으로 둘러 쌓여서 형세가 어찌 될지 알수 없어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죽었다. 나는 조용히 타이르되 「敵이 비록 千척이라도 우리 배를 당적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동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敵을 쏘아라」하고 여러 장수의 배들을 돌아보니 먼 바다에 물러나 있으면서 바라만 보고 나오지 않는 것이다. 배를 돌려 中軍 金應誠의 배로 가서 먼저 그 목을 베어 효시하고도 싶으나 내 배가 머리를 들리면 여러 배들이 차츰 더 멀리 물러가고 게다가 敵船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 사세가 낭패될까 두려워서 곧 호각을 불어 中軍 令下旗를 세우고 또 招搖旗를 세우니 中軍將 彌助項僉使 金應誠의 배가 차츰 내 배로 가까이 오고 巨濟縣令 安衛의 배가 먼저 온다. 나는 배 위에서 친히 安衛를 불러 「安衛야 軍法에 죽고 싶으나 네가 軍法에 죽고 싶으나.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하니 安衛도 황급히 敵船속으로 돌입한다. 다시 金應誠을 불러 너는 中軍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원하지 않으니 罪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敵勢가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 하고 두배가 바로 들어가 접전하는데 敵將이 그 휘하 船 3척을 지휘하여 한꺼번에 安衛의 배에 개미 붙듯하여 매달려 서로 먼저 올라가려 하니 安衛와 및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기로 맹세하고 싸우는데(모난 몽둥이를 쥐고 혹은 긴 창을 쥐고 또 혹은 水磨石덩어리로 함부로 치고 때리며 - 草稿) 힘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배를 돌려 바로 들어가 빗발 치듯 마구 쏘아 적선 세척을 남김 없이 무찔렀는데 鹿島萬戶 宋汝棕과 平山浦 代將 丁應斗의 배가 잇대어 와서 협력하여 敵을 쏘았다.(몸을 움직이는 敵은 한 놈도 없었다. - 草稿) 항복한 倭人 俊沙란 者는 安骨浦 적진에서 투항해 온 자로서 내 배위에 타고 있다가 내려다 보며 「저 무늬있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놈이 安骨陣의 敵將 馬多時라」한다. 나는 金石孫을 시켜 갈쿠리를 던져 배 위로 끌어 올리게 했더니 俊沙가 뛰며 하는 말이 「그래 馬多時다」하고 말하므로 곧 명령하여 토막 토막 자르게 하니 敵의 기운이 크게 꺾여 버렸다. 우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울리며 나가 각각 地·玄字 대포를 쏘고 또 화살을 빗발같이 쏘아 敵船 三十척(이때의 草稿는 두가지인데 먼저 쓴 데는 三十척 나중 쓴데는 三十一척으로 되어 있음)을 깨뜨리자 적선이 퇴각하고 다시는 우리 해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니 이는 실로 天幸이다. (싸움하던 바다에서 그대로 정박하고 싶었으나 - 草稿) 물결이 아주 험하고 (또 바람조차 역풍인데다 - 草稿) 형세도 외롭기 때문에 진을 唐筍島(務安郡 岩泰面)로 옮겼다.』

日記 다음 날 9月 17日 晴

『於外島(務安郡 智島面)에 이르니 피란선이 무려 三百여 척이 먼저 와 있었다. 우리 해군이 대승첩한 줄을 알고 서로 다투어 치하하며 양식들

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에게 주었다. 羅州 進士 林瑄 林權 林業 등이 와 보았다.』

(長文의 原文 日記는 내용 중복을 피하여 省約하고 丁酉 9月 16日 日記 끝 부분 原文은)

『…此實 天幸.』이었음을 밝혀둔다.

或者들은 말한다. 壬辰亂에서 우리 水軍이 優勢할 수 있었던 것은 神秘스런 전함(戰艦)의 역할이 至大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漆川梁 海戰에서 丁酉 7月 15日 元均 三道水軍 統制使가 이끄는 우리 水軍 總兵力 거북船을 포함하여 二百여척의 全艦隊가 거의 全滅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天人 對 拙將 元均의 天地같은 人間 等差를 새삼 실감하게 한다. 敗戰將 元均은 그 海戰에서 戰死하였다.

1598年 12月 16日(戊戌 11月 19日) 子正 李舜臣은 손을 씻고 船上에서 무릎 꿇고 앉아 「하늘」 앞에 盟誓하기를,

『이 원수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恨이 없겠습니다.』

하고 天地神明이 感動토록 두 손 모아 빌어달 때 이상하게도 天上에서 큰 별이 바다로 떨어졌다고 한다.<sup>34)</sup>

이날 敗走 最後를 發惡하는 倭敵 總力과 선두에서 勇猛 無雙히 督戰하다 李舜臣은 壯烈한 戰死를 하고 死后도 아들과 조카에게 遺訓으로 代戰하여 그의 長劍에 새겨 놓은 天誓 그대로 원수를 一揮 掃湯하고야 말았으니 그 날이 곧 7年 大戰의 終戰日이며 倭軍 敗戰日이요 李舜臣은 天人으로 天命을 完遂하고 一生을 끝낸 날이다.

너무나 奇蹟같은 生涯이다.

오만(傲慢)했던 明 陳璘 都督도 宣祖께 李舜臣을 稱頌하기를

『經天緯地の 才操와 補天浴日의 功勞가 있다.』

34) 全書 下 48面 李芬 지음 忠武公 行錄

『…是夜三更 公於船上 洗手跪祝于天曰 此誓若除死即無憾. 勿有大星隕於海中, 見者異之…』

라 하였다.

天의 六氣(陰·陽·風·雨·晦·明)와 地의 五行(金·木·水·火·土) 다 스리는 재조와 天을 도와 太陽을 더욱 빛나게 한 功績이 있다는 讚辭이다.

옛날이나 현재도 中國 사람들은 他國人을 과찬하는 경우가 흔히 없고 無上의 極讚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壬辰 倭亂 때 援軍으로 出征했던 明軍 將帥 陳璘의 오만하기가 이를 바가 없음은 亂中日記에서도 여러 곳 지적할 정도였다. 그런 陳璘이가 李舜臣을 天地造化의 재조가 있고 실지로 能力을 부렸다 하였으니 결코 지나친 評價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此際에 是正할 문제가 있다.

愛國愛族의 最高 象徵的 偉人이라면 公式的으로 李舜臣을 첫째로 꼽는다.

그러나 李舜臣은 歷史 이래 가장 이나라 이民族을 사랑한 분이란 말이기도 하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일 李舜臣의 영혼이 있다면 最高의 愛國愛族하였다고 首肯하겠는가?

이것은 「愛」 「사랑」이라는 概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

「사랑」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마음 속 깊이 기쁘고 즐거운 心情이 움터야 「사랑」이라는 感情心理가 된다. 또한 사랑은 一方 心理가 아니라 쌍방 相互 相生 相乘心理이다. 사랑은 絶對的 心理가 아니라 相對的 心理여서 반드시 사랑할 者と 사랑 받을 者가 있어 사랑이 시작하여 사랑 받든 者가 사랑해야 半分 不完全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 즉 一方的 사랑은 半分 사랑이요, 「1」이 못된 「0.5」사랑이라는 말이다.

理論的으로 「사랑」을 讚美하고 崇高하다고 格上하기 위해서 사랑을 絶對德目으로 까지 선양하고 있다.

사랑은 道德的으로는 崇高함에 이의가 없으나, 사랑은 心理分析的으로 볼 때 情緒요 意志도 理性도 아니다.

意志나 理性이라면 不變하고 永續的이나 情(緒)은 可變的이고 永續性を 보장 못한다.

이처럼 사랑은 아무리 거룩한 道德이라 하더라도 感情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一方 獨行할 수가 없으며 永遠히 사랑한다 해도 一時的 感情의 所望

일 수밖에 못 된다.

사랑의 소망은 길이 길이 변치 않고 時間에 따라 더욱 사랑이 뜨겁게 지속되기를 바라나, 物理的 世界도 뜨거운 熱은 반드시 熱源이 있어야 열을 내고 열원이 고갈되면 열도 끝나듯, 사랑이라는 情이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物理世界에는 뜨겁고 찬 溫度로 측정하나, 精神世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精神도 冷 溫 作用을 하여, 표현도 理性은 「냉철(冷徹)」하다 하고 感情은 「熱熱」하다고 한다. 찬 것이던지 뜨거운 것이든 長久하지 못하고 熱源이나 冷源의 에너지를 소모 되던지 추가 공급 되는가에 따라 변화 무상하다.

人生의 「사랑」이라는 感情도 뜨거운 精神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 源」이 계속 공급 充源되어야 한다. 마치 電力이 부족할 때 充電器를 充電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사랑源을 充源하지 않고 모든 人類에게 「사람은 모두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博愛主義者의 勸善勸愛는 마치 走行하던 車가 기름 떨어져 정차한 것을 人力으로 끌고 갈려는 것과 같다.

사랑은 구체적인 實踐 哲學이다. 人生의 生動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힘이 있어야 하며 힘을 주어야 한다.

感傷的이고 軟弱한 感情이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柔弱한 사랑이라면 그 正體를 모르는 假愛이다.

참 사랑이 거룩한 까닭은 받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며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남을 즐겁게 할 능력이 있고 本人이 즐거우며 기쁨이 남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어야 한다.

物質이나 精神이 넉넉해야 남에게 혜택을 줄 힘이 있다.

이제 韓民族 歷史 이래 李舜臣이 가장 거룩한 愛族愛國의 標本이라 하나, 지금까지 「사랑」의 概念을 多角度로 고찰한바,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자면 本人부터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데 李舜臣이 出生한 시대상황이 그렇게 즐거운 조건이 아니라 극도의 危機여서 風前燈火같은 運命期에 나라를 크게 걱정할 때이지 사랑할 때가 아니다.

「사랑」과 「걱정」 「근심」은 전연 상반된 心情이다. 우리는 言語 概念을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즐겁고 기뻐한다면 精神異常 취급하는 것밖에 않된다.

李舜臣을 愛族愛國者라 표현한다면 위에서 한 말과 추호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李舜臣은 「憂國者」라 해야 옳다.

앞서 「英雄」 「聖雄」이라 尊稱함이 부당함을 論證하였고 이제 愛國者를 是正하여 憂國者임을 밝혔다.

李舜臣은 나라를 사랑할 時代 社會的 여건이 아니었고, 朝廷 君臣들의 戰時 對應策, 奸臣輩의모함에 의한 極刑 危機와 겨우 連命으로 두 차례 白衣 從軍등은 나라 사랑할 여건이 아니었다.

平民이면 그 경우 나라를 원망하고 他國으로 移民 갈 망정 忠國心이 나올 수가 없게 마련이다.

이미 사랑은 相對的이요 絶對的이 아니라 한 바와 같이 李舜臣은 사랑이 自生할 逆條件이어서 愛國心이 있을 수 없었다.

이제 憂國心이 어떻게 救國하였는가 살피기로 한다.

純粹하고 至極한 憂國心으로 「내 나라」를 침략한 者 누구가 生命을 걸고 몰아 내겠는가! 「내가 앞장 선다」 하는 「責任者 나」의 의식이 強力하다. 그러나 共同體意識 主語인 「우리」는 「나」와 다르다. 「우리」는 「나」외에 民族 모두가 共同體이므로 同苦同樂할 運命여서 외롭지 않다. 그러나 同樂할 경우는 모두 한 무리가 뭉쳐 즐거움을 倍加 이상 선양하지만, 全體가 不幸이 닥쳐 同苦할 때 共同體의 道德性 수준이 문제가 된다. 높은 道德性의 共同體라면 단합이 強해서 철통같이 뭉치지만 全體가 모두 高度의 道德主體라고는 理論上 있을 수 있으나 道德의 王國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危機를 당할 때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심지어 一身만 살려고 도피하려는 者가 있게 마련이다.

共同體 「우리」의식이 危機가 強할수록 반비례로 弱해 진다.

危機가 極限에 달할 때 「우리」는 解體되고 외로운 個我들은 살길 찾아 分散한다. 여기에 解體의 책임을 각자가 전가하고 無責任한 「나」만 남는다.

이것이 大衆들의 모습이고 道德的主體者의 굳센 氣像과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倫理學者들은 共同體意識을 강조하며 언제나 「나」를 극복하여 (克己) 「우리」의식으로 處世할 것을 敎訓하고 있다. 당연히 「나」一身만 위해서 살지 말고 共同體의 一員으로 행위하는 것을 반대하는 倫理 道德學者는 한 사람이 없으나, 極限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利己主義者를 경계하고자 함이요 道德的 主體者 「나」는 문제외이다. 그러나 倫理 道德學者가 共同體 「우리」만을 내세운다면 道德的 獨立者 個人的 소중함을 모르는 非民主時代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우리」를 책임지는 「나」가 되어야 한다. 道德性이 박약한 「우리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世俗 大衆들의 實像이기 때문에 「우리」의 共同體意識까지 애매하고 「우리」속에 道德性이 實在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게 되었다.

道德性 有無가 애매한 現象에서는 各自가 大衆 民族 人類를 위해서 도움 되고 추호도 有害로운 일이 없으며 하는 일마다 책임지는 道德人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나」는 굳이 「우리」意識이 필요치 않는다.

道德의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人間들에게 끼치는 혜택이 확대되기 마련이다.

여기 道德力이 생긴다. 道德力은 精神力이나 精神力이 物理力과 병행해서 발휘하는 바 心身 綜合力이 되어 體力 이상의 힘이 나온다. 이것은 凡人에게도 체험되는 心身 統一力으로 本人 自身 예상치 못했던 힘이 솟구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운동경기의 勝敗의 최후의 決定은 精神力이 體力을 얼마나 복돋우나에 있다. 또한 體力은 있는 사람이 精神力이 박약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수도 많이 있음을 보아 온다.

반드시 運動競技가 아니라 人生의 生活을 모두 경쟁이라 볼 때 生活力이 心身統一力이며 이 힘이 강한 者가 旺盛하고 豊富한 生活人으로 앞서 간다. 生活이 몰락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경에 탓할 것이 아니라 生活力인 意志에 문제가 있다.

한 人生의 成敗를 확대하면 한 民族의 成敗가 이 原理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眞理의 統一力으로 萬人을 貫徹하여 萬人心이 一人心으로 集結된다.

이때 「우리」 마음이 아니라 「큰 내마음」이 된다.

「큰 내마음」을 가진 사람은 萬 사람 몫 뿐만 아니라 百萬名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이래서 大人인 그는 사람들만 通하는 것이 아니라 萬物과도 通한다.

天地 萬物인 宇宙와 「나」가 統一되는 것이다.

그 마음이 宇宙의 生成法則 그대로 간직하고 眞實하다면 天人合一인 「나」가 되므로 用事 無量하다.

天人合一인 「나」의 앞에 天人 共怒할 殘忍無道한 賊徒들의 悽慘한 罪惡 挑戰은 곧 「天」앞에 「天地神明」앞에 盟誓코 掃湯하고야 말겠다는 決心이 굳어진다.

이 決心은 天心이요 天力이기 때문에 百戰百勝일 뿐 우연이 있을 수 없다.

다시 李舜臣의 天人 道通 詩句를 음미하고 必戰의 이유를 밝히자.

『誓海魚龍動. (바다에 盟誓하니 魚龍이 떨고  
盟山草木知.』 山에다 盟誓하니 草木이 感動하네)

그리고 劍銘

『三尺誓天, (三尺 칼로 하늘에 盟誓하니  
山河動色. 大地가 떨고  
一揮掃湯, 한번 휘둘러 쓰러버리니  
血染山河. 피가 江山을 물 들인다.)

이 詩句가 털끝만한 과장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나, 절실히 감명하는 이도 百번 이상 읽고 명상할 필요가 있다.

天地人이 統一된 상태가 아니면 이 글이 나오지 않는다.

이 상태를 곧 「道通」이라고 한다. 李舜臣은 道通하였기 때문에 一人으로 天의 偉力을 발휘할 수 있었고, 九十九의 勝戰에 한 번의 失手나 敗戰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完人」이요 그래서 「天人」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孔子에게 어느 날 子貢이가

『百姓에게 널리 恩惠를 베풀어 衆生을 건졌다면 仁을 하였다고 하겠습

니까?』고 물었을 때 『어찌 仁을 하였다고 하겠는가. 그것은 반드시 聖人이나 할 일이다. 堯 舜 같은 聖君으로도 그렇지 못함을 근심하였다.』<sup>35)</sup> 답하였다.

德으로 仁을 行하여(以德行仁者 王者) 몸 가는 곳마다 萬人的 추앙을 받고 天意를 내 마음으로 天을 代行하여 天과 人的 共怒를 풀어 주어 博施 濟衆한, 또 無限한 能力을 잠재한 이 偉人的 尊稱을 무어라 불러야 옳을까?

아마도 孔子가 재림한다 하여도 自身보다 앞세워 「聖人 李舜臣」이라 불러 주기 저주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 民族性的 精華요 孔·孟 沒後 二千年 만에 이 나라가 배출한 儒敎의 理想 實現者가 곧 眞 聖人인 李舜臣이다.

「道通」이라는 概念은 周知되어 있으나 그 實踐으로 半萬年의 韓國史를 단절 직전에서 救國한 偉力이 李舜臣의 「道通」이다.

## II. 後天 道通 眞境論

여기서 말하는 「後天」은 人生이 탄생 이후를 말하지 않고, 새로운 世相, 새로운 未來 世界를 말한다.

그러므로 道通도 과거에 있었던 道通이 아니라 前無한 새로운 世界를 창조할 道通을 말한다.

### 1. 後天 道通 前提條件

만일 現在가 過去와 같고, 來日 또 來日이 過去와 現在처럼 변화없이 一律적으로 계속된다면 後天 世界나 世相이라 이르지 않는다. 時間은 未來를 모두 「새 날」이라 하지만 「새 날」이 「새 世相 날」은 아니다.

「새 世相의 날」이나 「새 世界의 날」은 참으로 과거에 없었던 別天地와도 같은 理想郷이 실현된 世界를 이른다.

35) 『子貢曰如有博施於民 而能濟民何如, 可謂仁乎. 子曰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論語 : 雍也)



그러나 世人들은 새 世相을 文化가 특히 物質文化가 高度로 발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오히려 人性은 冷情하고 打算的이며 奸惡하여 溫厚했던 옛날이 그리다고 한다. 이것을 보아도 未來가 모두 人類가 바라는 새 날은 아니다.

이 점 後天과 未來의 다른 바가 있고 後天 世界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 그렇다 해서 환상적 미래라 할 것은 아니며 人間들의 理想世界가 所望 世界요 노력으로 實現을 달성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後天世界가 어떻게 해야 실현되는가?

그 길은 순서가 있는 바, 첫 단계는 醫統을 得해야하고 다음은 成道하고 道通하면 眞境이 열린다.

基本인 醫統이 무엇인가가 甌山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연구하고 살 길이 醫統에 있다고 굳게 믿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典經이나 大巡典經에 다음 句節이 있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 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36)</sup>

後天 眞境이 열리기 전에 「병겁이 남아 있어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하니 後天世界는 다음 단계의 別 世界이다. 後天은 仙境이라 해도 人類가 모두 病劫으로 진멸지경이 된다면 누가 남아 있어 榮華와 幸福을 누리겠는가?

그러므로 後天 道通眞境에 앞서 先須 조건이 해결되어야 死線을 넘어서 新生의 오갓 榮光을 보장 받게 된다.

36) 典經 공사 제1장 36절 111~112面

문제는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두라」하였으니 병겁에서 구출할 방책이 없어 온갖 奇異한 법과 약물을 써도 무효하나, 한 가지 살 길은 醫統을 알아 두라는 것이다.

여기 문제의 「醫統」이 무엇인가? 에 살 길이 집결되었다.

死線을 넘어설 處方인 醫統이야 말로 道通 眞境에 들어 설 자격을 취득함이라 하겠다.

甌山 말씀에 醫統은 奇異한 秘方도 珍貴한 藥物도 아니라 하였으니 非物質이요 非秘方임을 言明하였다.

이러한 醫統과 道通 入眞境과는 直結되었으므로 醫統에 관한 올바른 研究를 하여 精確한 醫統觀이 서 있지 않고 甌山의 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筆者는 이 때문에 「醫統에 關한 研究」를 시작하여 連 四部作으로 끝내기에 이르러 本 大巡思想論叢 제 2輯으로부터 제 5輯까지 연재하였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醫統 받지 않고 道通하여 後天眞境에 들어 가려한다면 司法 시험에 不合格者가 判檢事가 될 수 없고, 車 운전면허 시험에 不合格한 者가 車를 운전할 수 없으며, 重病者가 화려한 希望을 꿈꾸는 것과 같다.

後天世界가 열리기 전까지는 先天世界가 지속되고 있다. 先天世界는 大病 小病에 陷고 있는 바 그 病名은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라 하였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  
大仁大義無病.  
.....』37)

라 하였다.

甌山の 「道通」과 「醫統」말씀은 몇 句節 되지 않아 모두 열거하였다.

甌山을 연구하는 學者나 그 信仰人들 치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는 甌山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다면 가장 깊은 관심처라 하겠다.

그러나 眞理는 비밀 속에 가두어 뒤 凡人으로서는 찾을 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有識者 無識者를 가리지 않고 「옳다」는 是認하는 곳에 있다. 이러자면 어떻게 無識層까지 共感할 만큼 至近至處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眞理는 事實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白은 白이고 黑은 黑이요, 하나 있는 것은 하나요 둘은 둘이 사실이면 眞理의 基本이다.

人間이 기교를 부려 白이 黑도 되고 하나가 둘이 되는 재주 때문에 眞理가 變態해 가고 복잡해 간다.

甌山이 天地公事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겹재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아 있다고 함은 사람의 造作 기교는 眞人인들 그 변칙 변태 무상함을 예측할 수 없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醫統이 末世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眞理라면 가장 眞實한 사람을 선발하는 基準值일 것이다.

醫統은 결코 凡人이 찾아낼 수 없는 비장한 곳에 은익한 약물도 秘方이 아니라 강조한 점을 보아 平凡한 眞理일 것이다.

그리고 先天 末期 病名은 甌山 化天후 발견된 遺書에 「無道病」이라 진단 내렸고 藥名은 「有道」이며 病이 침범치 못하는 無病大藥은 「大仁」 「大義」라 하였다.

이제 先天界에서 後天界로 넘어갈 수 있는 活路인 醫統은 孝 忠 烈 禮로 해서 大仁 大義이라 明示하였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肉身에게 急重한 病이 엄습할 때 살리는 처방인 醫統이 아니라 人性이 전체적으로 황폐화 됨을 回生시키는 처방이다. 人性들이 猛獸보다 惡毒하여 서로 투쟁한다면 身病보다 더 大局的 과멸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人間들의 自作이요 造物主가 있다 해도 구제해줄 영역이 아니어서 甌山은 「이 동토에서 다른 겹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라

고 하였을 것이다.

만일 人類들이 不和하여 三次大戰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상상 못할 무서운 核戰爭이 되어서 파멸될 것이다.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는 말씀은 한 치의 과장도 없는 未來像이기도 하다.

무엇인가 만들 때는 사용할 필요가 있고, 만든 것은 쓸 날이 있을 터인데 20여년 전 보도에는 그 때 強大國들이 보유하고 있는 化學武器와 核武器를 사용하면 地球는 10번 이상 파멸시킬 파괴력이 된다고 했다. 지금은 中進國 後進國이라고 생각하던 나라들까지 核武器를 제조하고 실험하고 있어 強大國들은 그들의 專屬物이 아니라 나라마다 自國 보호물이고 常備品이 되었다고 인식이 바뀌어졌다. 그들이 核武器 제조와 실험을 중지하라고 위협하고 있으나 명분이 서지 않고 설득력 없는 효력 상실한 경고이다.

나라들 마다 비밀리에 可恐 新武器를 경쟁적으로 개발 제조하고 있는 量은 地球를 몇 10번 파괴하고도 남을 것이니 未來는 科學이 발전한다고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어 간다.

이것은 後天世界相이 아니라 先天世界의 末期徵候이다.

後天世界가 열리자면 人類가 精神革命이 있어야 하겠다. 甌山의 醫統은 仁義 道義精神으로 革新할 것을 焦點한바, 새 精神으로 바꾼 사람만이 새 사람이 되어 새 힘이 나온다. 새 힘을 발휘하여야 道通도 있다.

## 2. 道通眞境의 構圖

緒論에서 「道通이 있는가?」의 前提를 「있다」고答하므로써 이 論文은 시작하였다.

物理世界에 道路가 있듯 精神世界에도 마음의 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구나 一日이 시작되면 그 날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肉體를 계획대로 조종하여 뜻 한바를 달성하는 것이 마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마음의 길이 없는 사람은 뜻이 없는 사람이고 無計劃하여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할 일이 없어 한 일 즉 業績이 없고 현재도 無爲 消日하며 未來 또한 時間만 낭비할 뿐 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無計劃하게 一生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음의 길인 道를 가고 있으나 物理世界的 道路중에도 小路와 大路가 있어 千萬 가지의 도로가 있듯, 마음의 길도 작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부터 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人間 숫자 만큼이나 다양한 길을 걸어간다.

작은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小人이라 한다면 큰 마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大人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나아가 「道通」이라 하면 단순히 道路를 通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획대로 進行하는 것, 또 자기가 뚫은 길 自信있게 가는 것부터 그 分野에 道通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 社會에서 「道通」이라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남 달리 能通한 사람은 그 일에 道通하였다 하고 그 分野에 「道士」라 칭하는 것도 이유 있다고 하겠다. 高麗 瓷器 李朝 白瓷器를 구어 만들어 냈던 사람들은 瓷器術에 道通한 사람들임에 틀림 없다.

이처럼 각 分野마다 能通한 實技를 갖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小道通한 道士라 해서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이러한 小道通의 次元을 넘어 中級이상 大人의 大道通은 어떤 경지일까?

그것은 한 사람의 專攻分野에만 能通한 것이 아니라 萬人 모든 人類가 바라는 옳은 길만 自信있게 가는 사람이며,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사람은 모두 同行하도록 先導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聖人이라 불러 왔고 歷史上 公認된 四大聖人이 있으나 筆者는 眞理의 길을 알고 自身이 앞서 가며 同行하도록 교육 이상 博施於民하고 能濟民한 사람은 孔子도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理想的 帝王 堯 舜도 그렇게 못 했던 것을 攄우쳤다 하는데 韓民族 李舜臣은 能行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李舜臣은 前 四大聖人을 앞 서는 聖人이며 그 證據는 天人合一의 偉力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天人合一의 偉力을 發揮하여 經天緯地하고 補天浴日 (明軍 陳璘 將帥의 말)한 李舜臣은 先天時代 이래 가장 큰 道通을 한 聖人이라 하면 歷史가 증명할 것이다.

道通은 작게 一人一技의 技能이 완숙하여 專攻別 人間文化財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最高級 道通을 한 李舜臣같은 분은 上通 天文하고 下達 地理하고 中察人事를 實証하였다.

呪文을 암송한다 하여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야 한다.

本 論文을 量으로 따지면 李舜臣 研究 作品이라고 하겠으나 主旨는 「道通」에 있고 道通의 結果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 推理하는 것이다.

聖人は 몇 千年만에 하나 둘 정도 출현하나 道通도 上 中 下級이 있어 技能 보유 人間文化財級 小道通人은 많으나 上級 道通 聖人は 더욱 희귀함은 당연하다. 本 論文이 李舜臣 主題 論文으로 착각할 만큼 全篇에 걸쳐 李舜臣을 거론하는 까닭도 大人의 大道通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歷史上 實証을 통해서 道通을 배우자는 것이다.

李舜臣의 亂中日記를 통해서 지극한 仁者요 大義者임을 구절마다 感銘받았을 것이다.

飯山에서 大仁 大義는 無病이라 한 것과 大仁 大義者가 바로 400年前 이 땅에 태어났다가 逝去한 李舜臣임을 깨달으면 道通의 實驗 공부함이다.

道通이라는 자체가 글을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精神과 道 즉 眞理가 開通하는 상태이다. 道通하는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李舜臣의 生涯와 그 修學 修鍊과정을 익히는 것은 좋을 것이다.

眞理 탐구를 主業으로 종사는 사람들을 學者라 하나 「眞人」이라 하지 않는다.

道通한 사람은 「道」 곧 「眞理」요 「通」은 「達成」이므로 「眞理를 達成」한 사람이며 眞理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實踐하는 知行合一이어야 해서 「참 사람」이요 「眞人」이다.

眞人也 等級이 있어서 좁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직업 일만 옳게 알고 아는 대로 正直하게 종사하는 사람을 小眞人이라 하면 細部 專攻에만 能하지 않고 연관 분야까지 能通한 사람은 中眞人은 된다 하겠고 그러나 專攻에 限定되지 않고 無不通知 無不能事하다면 上眞人이라 하겠으나 聖인이 몇 千年만에 몇 名 출현하듯 희귀하다. 이 경지에 이른(至) 사람을 「至人」이라 하며 眞인이 至인이며 聖인이요 上等 道通人이다.

理論上으로나 想像的 人物이 아니라 歷史上 實証人이 李舜臣이었음을 確

認하였다면 이제 再評價를 새롭게 하고 後天世界の 第二의 李舜臣은 上通天文, 下達地理, 中察人事를 어떻게 할 것인가 推論하지 않을 수 없다.

李舜臣없는 四百年前 朝鮮 歷史는 어떻하였을가 상상한다면 百方으로 생각해도 戰備없이 倭亂 침략을 막아낼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 시대에 野獸 같던 倭敵에게 敗戰했다더라면 祖國을 뺏겨 韓日 合併되었을 것이고 血統부터 끝나서 混血로 韓民族이 없어져 民族을 되찾겠다는 名分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半萬年 歷史가 朝鮮朝로 끝났을 것이다.

당시 賢明치 못 했던 王(宣祖)을 위시해서 朝廷 高官들은 不遠 倭軍이 침략할 것을 對備해서 만전을 기했던가? 오직 栗谷先生만이 十萬 養兵을 주장하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無力한 나라로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有名 無名 將兵들의 死力을 다 한 戰功이 있었지만 長期間 침략 전쟁의 萬全을 기해 온 敵의 戰力을 東奔西走 連戰 連勝한 李舜臣의 天·地·人 道通戰이 아니었다더라면 勝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上等 大道通의 偉力은 先天世界에서 이것을 例証할 수 있으나, 後天世界の 上等 大道通은 어떻겠는가?

後天 上等 道通의 特徵은 첫째 한 두 사람의 道通으로 後天世界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先天時代는 한 사람의 上等 道通으로 亡國 消滅 직전에서 救國할 수가 있었으나, 後天世界の 單位는 一國으로 局限하지 않고 적어도 地球村 世界 전체의 存亡이 문제된다.

둘째 後天世界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生存 자격이 있는가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바 그것이 醫統이다. 醫統은 개인별로 취득하는 것, 누구가 의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甌山이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sup>38)</sup>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儒佛仙)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sup>39)</sup>

38) 典經 교운 제1장 33절 169面

39) 典經 교운 제1장 41절 172面

말씀한 바와 같이 道通이 각자 닦은 바에 따라 열리는데 그 자격 조건인 醫統도 각자 취득한다. 道通과 醫統의 차이는 道通의 경우 上中下等の 계급이 있으나 醫統은 등급의 차이가 없이, 의통을 통과했는가 못 했는가 둘 중 하나일 뿐이다. 마치 자격 시험에 합격했는가不合格인가 뿐인 것과 같다.

우선적으로 예비 시험에 합격해야 본 考査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하듯 醫統을 받아야 하는바 甌山의 遺書에 의하면 孝子が 될 것, 忠誠스러운 사람이 될 것, 恩惠를 항시 잊지 말고 感謝할 것(烈 즉 不忘師), 每事に 禮義 바를 것, 正義로울 것, 仁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sup>40)</sup>

사람이 이렇게 道德性を 갖췄다면 결점이 없다 하겠으니 새 世相이 되는 날 새 歷史를 창조할 能力이 있다.

이러한 道德人은 틀림없이 醫統을 받을 것이고 또 그 道德性 정도에 따라 道通을 上中下 等級으로 받게 될 것이다.

後天世界는 醫統 받은 사람만 살게 될 것이므로 道德世界요 高度의 人格者 社會일 것이므로 奸惡하고 不正한 者는 있을 수 없고, 살 자격이 없어 善人들만 살아 갈 것이다.

道德世界에서 人格者가 道通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理論을 떠나서 實証을 들어 確認하기로 하자.

우리 現實에 있는 人間文化財級 職能의 特技者가 小道通人이다. 平生을 職務를 위하여 全念一心으로 集中하여 온 사람은 그 誠心이 足히 그 分野의 一人者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木工藝人 陶瓷器工 판소리 國樂人 등 많은 분야에서 特出한 技能人은 倫理 道德으로 道通하지는 않았지만 職業에 精神統一한 功으로 道通하였다.

最高上等 道通人은 우리 歷史 이래(先天時代) 代表者는 李舜臣을 들었다.

道德적으로 높은 仁者이기에 公私生活에 자극히 仁慈하였고, 孔子 堯 舜 까지도 이르지 못 했다는 博施濟衆하였으며, 七年 大戰에 李舜臣만은 단 한번의 敗戰없이 百戰全勝의 기록을 올렸다는 것은 道通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40) 典經 행록 제5장 38절 94~95面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後天 道通은 先天 道通보다 규모가 커야 하겠다.

즉 李舜臣 한 사람의 道通으로 逆天無道한 極惡暴徒들을 격퇴하여 救國濟衆하였는데, 一萬二千 또는 그 이상의 道通君子가 나온다면 과거 歷史에서 있을 수 없었던 새 歷史가 열릴 것이다. 數字로 추측해도 千倍 萬倍의 幸福한 世界가 올 것이다.

## 結 論

東洋人 뿐만아니라 世界 知性人으로서 漢字를 안다면 그 語彙인 「道通」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事物의 奧妙한 이치를 깨닫고 通함」까지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나 한걸음 들어가서 「奧妙한 이치는 凡人이 알수 없는 秘境의 뜻」이라 생각하여 道通 자체를 걸은 아는 것 같아도 속은 알 수 없고 신비스런 경지라 멀리하게 한다.

本 論文에서 道通을 現實 속에 얼마든지 접촉하고 있음을 例証하여 下等 道通으로는 각종 技能 보유자 人間文化財가 어엿한 그 분야의 道通이라 하였고, 一身의 직업에 局限되지 않고 자신이 處한 世態를 정확히 파악하여 適中한 處世하는 사람은 中等의 道通은 하겠다. 그러나 上等 道通의 경우 過去는 물론 現實을 정확히 파악하고 未來까지 통찰하여 올바른 歷史를 창조하는 선구자가되어야 하겠다. 물론 上通 天文하고 下達 地理하고 中察 人事해야 上等 道通한다 하나, 現代的으로 해석하면 宇宙科學時代에 적합한 宇宙原理를 개발 宇宙平和에 큰 몫을 하고, 自然을 보호하며 共生 調和하고, 人間 心理를 투명한 유리 속처럼 뚫어지게 관찰할 능력을 갖었음을 말한다.

下等 道通은 많으나 中等 道通만 해도 많지 않은 것은 一國 內에서 누구나 中等級 道通人인가는 本人이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賢明한 체 하는 知性人들 특히 政治家들은 너무 혼자 똑똑한 체 하나 僞知人들이요 僞善者들 대부분들이다. 향차 上等 道通人은 現世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後天世界가 반드시 열리고 上才 道通이 있을 것을 믿는다.

그 이유는 先天 우리 歷史的 實證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歷史的 敎訓처럼 明白한 眞理 敎育은 없다.

筆者는 「道通 眞境」論文에서 한 偉人傳記를 70% 정도 長說한 까닭은 몇 千年에 三·四名 정도 出現할 聖人보다 위대한 道通聖人을 추대하고 그런 道通君子가 절실히 多數 요청되는 後天期 예비기 이기 때문이다.

李舜臣의 至極한 孝心 忠誠 正義心 仁慈心은 千秋 萬代 모든 이가 배워야 할 示範이요 上才 道通 聖人の 大路이다. 이 大路를 多數 갈 때 後天 眞境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 글 머리글에서 「道通은 있다」를 이렇게 證明하고, 甌山의 醫統을 大仁 大義로 體得하여 未來에는 不遠 上才 道通이 보다 많이 나와 眞境 社會가 期必코 실현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典經

論語, 孟子

李忠武公 亂中日記

李忠武公全書 上下

趙仁福 著 : 李舜臣 戰史研究

이은상 지음 : 성웅 이순신

久遠의 聖雄 李舜臣 : 韓國人の 人間像

崔碩男 著 : 李舜臣과 그들